

풀 뽑기로 맛있는 과일 생산

1. 땅과 · 산의 풀로 과즙 듬뿍 담긴 배

하야시 토오루씨
후쿠오카현 아사쿠라시



▲ 장화로 배 농장의 풀을 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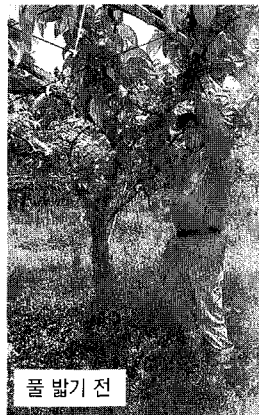
「풀이 땅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 그렇게 생각해서 풀을 굳이 자르지 않고 뽑거나 쓰러뜨릴 뿐이다.
중경(사이갈이)도 하지 않고 깊은 맛이 있는 과일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풀 뽑기를 한 밭은 일단 어떻게 되어 있을까?
초원생활 20년째인 하야시 토오루씨에게 안내 받도록 하자.

가. 풀은 가장 많이 자라도 무를 위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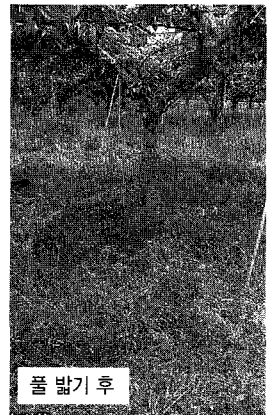
풀이 1년에 가장 많이 자라는 것은 딱 지금쯤(5월)이지만, 그래도 무릎 위 정도까지 밖에 자라지 않는다.

잘 우거진 봄풀은 적과(과실을 숙아 냄)를 하면서 밭로 밟아 가면 이미 올라와 있다. 쓰러져서 지표층을 덮으면 여름풀을 억제해 준다.

다만 아침이슬로 바지가 젖어버리기 때문에 장화는 필수품이다. 주변 분들은 “장화一家”라고 부르고 있다(웃음). 드럼통을 굴려서 더 효율적으로 잘 쓰러뜨리는 것도 좋다.



풀 뽑기 전



풀 뽑기 후

▲ 하야시 토오루씨(68세) : 딸 하라다 카요씨, 이쿠마씨 부부와 2인 가족으로 2.4ha의 배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제1회 전국과수기술·운영 콩쿠르에서 입상하였고, 현 외의 지도에도 힘쓰고 있다.

나. 밟으면 일어나지 않는 풀을 소중히

풀을 자르면 토지가 마른다. 여름에 풀이 있으면 밤이슬로 흙이 젖지만 자르면 건조해진다. 흙의 건조가 배나무에 가장 나쁘다.



다만 자라게 해도 좋은 것은 밟아도 일어나지 않는 풀. 예를 들면 살갈퀴와 냉이이다. 살갈퀴는 질소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흙이 비옥하게 된다. 냉이는 이미 시들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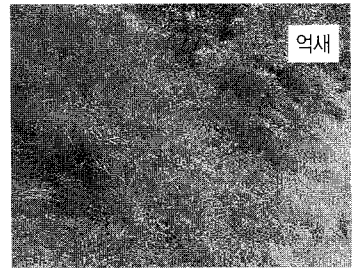
▲ 밟으면 다시 서지 않는 것이 맘에 드는 풀 중의 하나로 뿌리를 적시면 잎이 빨갛게 된다. 이질풀과 같은 볼로초과로 그 밖에는 별꽃 같은 것도 맘에 든다.



▲ 참소리쟁이과로 수영(승아)이 있지만 수영의 잎 테두리는 사진과 같이 물결모양은 아니다

라. 산의 풀을 자른 밭

이것은 제방의 풀이다. 11월이 되면 한 달 동안 자른 것이 밭에 깔려있다. 원지의 풀은 부드러워서 바로 분해돼 버리지만 억새 같은 산초는 천천히 분해돼서 흙의 통기성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다. 강하게 자라는 풀만 뽑는다.

강하게 높이 자란 풀만은 보이는 대로 뽑는다. 메귀리라든가 참소리쟁이, 선로 옆이나 공터에 자라는 사람 키만 한 잡초라든가 하는 것이다. 초원생활을 시작할 즈음인 20년 전에는 봄풀에 제초제를 사용했었다. 하지만 점점 강하게 자라는 풀이 줄어들고서부터 작년부터는 제초제도 치지 않는다.

마. 부드럽고 과즙 듬뿍 담긴 배가되다.

보이는 것이 풍수(일본 배의 품종), 20세기 개량종 선골드이다. 우리 배는 알 굵기가 좋고 수분이 많다. 가지를 섞지 않고 앞에 빛을 잘 받고 있는 것과 통기성이 좋은 흙 덕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는 보까시를 주지만 질소로 10a 20kg 정도로 적게, 칼륨성분이 많은 것이나 가축분뇨 퇴비는 사용하지 않고 선로 옆이나 공터에 자라는 사람 키만 한 잡초를 깔기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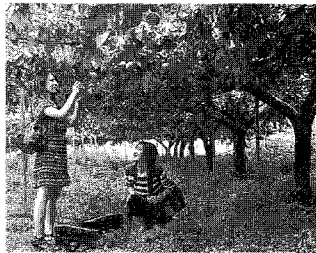


끝은 잘라내지 않는다.

▲ 2.4ha 과수원 손님이 들어오는 4~5반(약9.92㎡/반)은 수확 전에 제초기로 잘라낸다. 덩굴 아래는 밭다.



◀ 풍수(일본 배의 품종)는 수분이 많고 육질도 살살 녹을 정도로 부드럽다



◀ 행수(일본 배의 품종)의 밭에서 배따기를 즐기는 손님들. 로프 쪽은 풀투성이



◀ 오른쪽 페이지의 밭을 안쪽부터 본 곳. 보이고 있는 풀은 작물의 원료가 되는 모시풀과의 풀고사래!?
하야시씨의 배는 H형 정지(과수의 가지다듬기)로 가지 사이를 2.5m로 넓게 한 것이 특징이다. 다목적 그물을 덮은 재배로 행수(일본 배의 품종)를 3t. 천적이 늘어난 탓인지 응애제는 봄 개화전과 장마가 끝난 직후 2회

하고 있다. 칼륨의 효과만큼 배의 육질이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생육기에 배의 잎이 풀색을 하고 있으면 딱 좋은 영양 상태이다.

바. 경작지에서 작물의 뿌리 주변을 풀로 덮은 그 아래는 흙이 물기로 부드럽게 부풀게 된다.

겨울(2월말) 밭에서 풀을 뒤집어보면 면모 같은 풀뿌리가 뻗뻗이 자라있다. 그 뿌리를 둘러싸고 찻혀보면 수도의 육묘 매트같이 풀뿌리가 매트 모양으로 되어있다.



▲ 11월에 깔았던 억새 덩어리를 들어 올리는 하야시씨와 하라다 이쿠마씨. 억새는 얇게 펼치기보다 다져서 두껍게 깔아야 흙이 물기로 인해 부드럽게 부풀게 된다고 한다.

우리 밭은 걸으면 흙이 물기로 부드럽게 부풀어 있다. 많은 풀에서 지표가 가려져 있으면 흙의 단립화가 아래쪽으로 나아간다. 배의 뿌리가 있는 20~30cm의 층까지 잘 되어있다. 그렇게 하면 비료도 균형 있게 흡수된다. 그리고 나서 흙을 분석하면 과잉 성분이 하나도 없었다. 풀뿌리와 양분의 서로간의 영양흡수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 그것은 빼앗긴 쪽이 오히려 쓸모없는 비료를 흡수하지 않아 배가 더 잘 자라게 되었다.

※ 배 농장에 관해서는 2008년 5월호 195페이지, 9월호 319페이지, 10월호 342페이지에도 실려 있다.

2. 맛있는 밀감을 위해 풀을 쓰러뜨리는 삼각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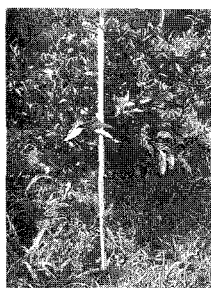
이와모또 이사오씨
와까야마현 카이난시

가. 수분을 머금고 있을 때는 양분경합을 시키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봄풀은 자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풀을 자르면 뿌리가 남아 풀이 시들지 않기 때문이다. 6월에는 시들어야 할 풀이 7~8월까지 무성함으로 밀감이 더욱 영양을 필요로 하는 수분기(7월 전반) 때 봄풀에 영양을 빼앗긴다.

더욱이 갈퀴덩굴이나 메꽃과 같이 줄기까지 도달할 정도로 뻗은 봄풀은 사진의 삼각괘이로 쓰러뜨리고 밀감 가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둔다.



▲ 밀감 나무와 삼각괘이



▲ 삼각괘이의 갈. 주변의 풀은 갈퀴덩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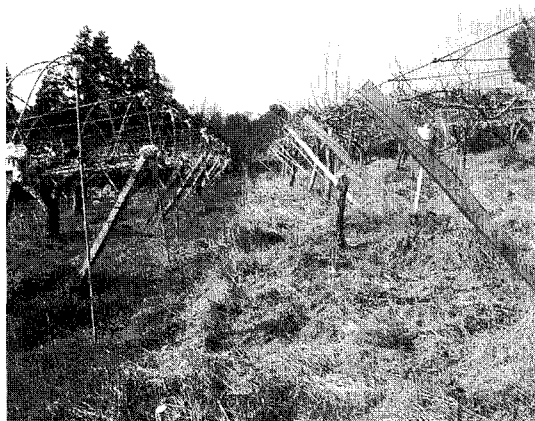
나. 알루미늄 소재의 가벼운 삼각괘이

삼각괘이는 홈센터에서 산 것이다(1,880엔). 자루 부분이 알루미늄 소재이고 여성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우며 지금까지 사용한 것 중에서 가장 사용하기 쉽다. 삼각도의 자르는 부분

으로 공구를 자르는 것도 가능하고, 갈퀴 부분을 사용하면 뽑을 수도 있다.

굳이 봄풀을 남겨두면 그 뿌리도 빨리 시들게 되므로 흡수의 통기성을 좋게 해 준다. 더욱이 밀감의 새잎이 녹화 될 때 진디물의 피해를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 밀감의 새잎보다 봄풀 쪽이 진디가 더 생기기 때문에 방제회수를 1회 줄일 수 있다.

또한 봄풀을 남겨두면 가을 이후 여분의 비료를 흡수해 주거나 풀뿌리에 달라붙는 VA균근균이 밀감의 인산 흡수를 좋게 해주기도 하므로 맛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한다.㉞



▲ 봄풀을 자르지 않고 밍기더니 배농원의 봄풀을 억제할 수 있었다!(후쿠오카현 히로가와마 나까무라 테루오씨)
사진을 보면, 오른쪽이 연재 「온난화 시대 배 재배」의 나까무라 테루오씨의 밍기로 마침 가을 풀을 자를 여유가 없어 걸가지치기 시기에 풀을 밍은 채로 그대로 두었더니 깔린 짙 상태가 돼서 봄풀이 돌아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진이고, 왼쪽은 보통의 풀을 자르고 있는 이웃의 밍기로 작년 12월 촬영한 것이다. 이 후 이 밍의 봄풀은 3월 내내 억제가 가능했고, 제초회수가 1회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나까무라씨는 앞으로도 자르지 않을 작정이지만 봄풀에 한해서는 살모사의 안식처가 되므로 깨끗하게 자른다고 한다.

〈편집자 주 : 본 원고는 일본 현대농업 2009년 5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임〉